



예술을 통한 소통: 이주민과 선주민의 예술 활동 협업

정소희 (독립영화 감독,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활동가)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Asia Media Culture Factory, 이하 AMC팩토리) 2011년 11월 말에 설립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주민 예술 단체이다. 이름이 긴 편인데 그만큼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현재는 나와 색알마문 감독 이렇게 두 명이 상근 근무를 하며 운영하고 있다. 예술제를 기획하고 영화 제작과 감독 그리고 이주민 포함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부 강연과 미디어 교육도 하고 있다.

AMC팩토리 설립 이전부터 이주노동자영화제에서 영화하는 이주민들과 활동하면서 이주민 중심으로 예술 활동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었다. 커뮤니티처럼 놀면서 활동하던 기간이 2년 정도 되던 시점에 모임을 위한 공간이 없고 정식단체가 아니어서 활동이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었다. 마침 아름다운 재단에서 새로운 단체를 인큐베이팅하는 프로젝트를 하던 첫 기수에 선정되어 3년간 2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프로젝트에 지원할 때 지향했던 것은 이주민 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하면 각 나라별 커뮤니티가 전통춤 추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때다. 혹은 소위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외국인 노래자랑에서 트로트나 케이팝 부르는 정도였다. AMC팩토리는 한국 사회에서 자기 얘기로 문화하는 사

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공간과 플랫폼을 지원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기획하는 이들을 양성하고 지원한다. 이주민들이 서로 교류·연대하고 소통을 확대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기대한다.

한국에서 이주민이라고 하면 국제결혼여성 혹은 이주노동자만 생각하는데 이런 정체성 말고 예술가, 문화 활동가로서의 이주민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주민이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 이주민방송(MWTV)이나 이주 관련 단체들을 보면 여러 상황들 때문에 한국 선주민 활동가가 중심이 되고 이주민은 단순 참여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AMC팩토리도 단체설립 등록 절차상 주요 운영위원은 선주민 중심이지만 기획위원들은 이주민들 중심으로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큰 단체들은 연구자나 유명인사들을 참여시키는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처럼 소규모 단체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힘과 권한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외부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약간 폐쇄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실무자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와서 친해지고 서로 알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홍대 앞과 문래창작촌 처음 활동 시작 할 때 홍대 앞에 자리 잡았다. 쉬운 길을 생각하면 안산, 남양주 마석, 동대문 일대 등 이주민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거다. 이주민들은 쉽게 모일 수 있겠지만 이주민들만 모여서 활동하는 건 계토에 갇히는 것 같았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교류하고 소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 있기로 했고,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예술의 중심

인 홍대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선주민 예술가들과 작업하자고 제안 할 때 안산으로 오라는 말과 홍대로 오라는 말 사이에 심리적 거리는 꽤 크다. 독립 예술가들에게 홍대로 오라고 할 때는 이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을 원하고 문화를 즐기려는 일반인 모두 오기에 편한 곳이기도 했다. 홍대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우리의 활동이 좀 더 주목받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이후에 좀 더 외곽으로 옮기더라도 초기에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물론 임대료가 좀 높았지만 그때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홍대에서 3년 간 지내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재단의 지원이 종료되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이사하면서 2015년 영등포구 문래동의 문래창작촌으로 왔다. 당시 문래동에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홍대에 있었던 같은 이유로 문래동을 선택하게 되었다. 문래동으로 오자 근처 신도림역 때문에 이주민들이 오기에도 편해졌다. 경기도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물리적 거리보다는 익숙한 지역명을 가진 곳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낀다. 서울역, 이태원역, 동대문역 등 익숙한 역 이름이나 지역명이 중요하다. 신도림역은 이미 이주민들에게 익숙한 곳이었다. 이런 면에서 문래동은 예술가와 이주민 모두가 모이기에 좋은 장소였다.

현재 AMC팩토리의 주요 활동은 이주민 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Free Port) 운영, 콘텐츠 제작, 서울이주민예술제(Seoul Migrant Art Festival) 개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프리포트(Free Port) 단어 의미 그대로 자유로운 포트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올 때처럼 국경을 넘으려면 공항(airport)이나 해항(seaport)을 거쳐야 하고 이런 포트에서는 비자가 필수다. 하지만 우리는 비자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포트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프리포트라고 지었다. 검색을 해보니 프리포트(free port)라는 단어가 이미 있었다. 미국의 지명이기도 하고 자유무역항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후자와는 의미가 비슷한 것 같다. 사전에는 없지만 다른 의미로 컴퓨터에 기기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포트들이 있다. 기기와 포트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연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서로 연결되는 열린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프리포트란 이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프리포트의 주방 프리포트 공간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사무실과 작업실을 위한 공간이지만 없던 수도 시설을 일부러 끌어다가 주방을 만들었다. 이주민노동자들은 숙소 여건이 열악하고 주변 눈치 때문에 강한 향신료 냄새가 나는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친구들과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고용주의 눈치, 함께 거주하는 다른 이주민노동자의 눈치도 봐야 한다. 그래서 이주민노동자들이 직접 음식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모여 파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주방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공유하는 공유공간들도 사무실, 연습실, 주방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주민들이 선주민의 눈치를 볼 것 같았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 예산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주방 공간을 포함한 공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영화와 퍼포먼스 워크숍 영화나 영상 관련 워크숍은 지속적으

로 해오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위탁을 받아 이주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워크숍을 하고 있다. 완성작품들은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별도의 섹션으로 상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퍼포먼스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이주민예술제에서 매년 연극, 퍼포먼스, 그리고 연극과 퍼포먼스를 합친 기획공연을 하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5개월 전부터 매주 일요일에 모여 워크숍을 진행한다. 몇 년 전부터 연극을 약간 퍼포먼스로 바꾸고 있다. 연극의 경우 대사가 문제가 되었다. 이주민들이 한국어도 어렵는데 연극의 대사는 일상어도 아니어서 이주민 참여자들이 대사 외우는 걸 많이 힘들어 했다. 대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용가와 협업을 통해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제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참여하는 이들이 재미없어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내러티브를 담기 위해 연극적 요소와 합치기로 했다. 참여자들이 극중 등장인물이 되고 연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연기 위주로, 대사는 어려워 하지만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은 퍼포먼스 중심으로 참여한다.

이주민 제작 콘텐츠 이전에는 ‘서울시 마을미디어’에서 유튜브(YouTube) 활동도 했는데 그 콘텐츠 주제 중 하나가 <100명의 이주민, 100명의 이야기>였다. 100인을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 100인의 사람이 있다면 100인의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주민이라면 노동자 혹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누군가로 단일화해버리면서 하나의 묶음으로 판단해버린다. 이 콘텐츠는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이주민을 보여주려 했다. 또 다른 영상 제작 콘텐츠 중에 <알면 문제없어요>는 이주민노동자나 이주민들의 노동환경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콩트로 만들어 배포한 프로젝트다. 노동법과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관련

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다국어 자막도 제공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고, 콘텐츠 파일이 담긴 USB나 DVD를 배포하고 경기도 및 서울의 관련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영과 강연을 5년 정도 했다.

이주민의 독립영화 제작 프로젝트도 우리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 다른 단체의 미디어 교육은 대체로 체험형 교육으로 끝나거나 기획-편집-촬영 전체 과정을 마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참여자가 전체 과정을 모두 경험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실제 현장에서 독립영화 감독들도 모든 작업을 다 하진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직접 그 이야기를 연출 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스텝과 멘토 등을 구해주고 AMC팩토리가 영화를 제작-상영-배급한 적이 있다. 그런데 2회 정도는 괜찮았으나, 결국엔 이런 시도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에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참여자들이 그만둘 때는 ‘이 사람들이 의지가 별로 없구나’라며 실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계속 실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완성형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년에 성공했던 프로젝트가 다음해에는 실패하기도 한다. 이주민들은 특히 체류 조건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이 작업하던 사람들이 비자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생계 때문에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그만두기도 한다. 이런 경우 계속 ‘리셋’되는 느낌이지만 한 걸음씩 나가려고 한다.

영화 검열 영화제 자체는 검열이 없는데 흥미로운 건, 영화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의 자기 검열이다. “어, 이거 한국 사람 욕해도 돼요?” 혹은 “한국 사회 욕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뭐

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영화를 보고 한국인들이 기분 나빠서 공격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영화관까지 와서 이런 작품을 보는 관객들은 이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어서 유튜브 같은 온라인에 무작위로 공개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할 사람은 없다고 대답한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일단 겁을 내고 “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데 우리의 활동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한다.

연극 <우리 동네 식당> 매년 참여자 모집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이미 참여하던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모집에는 호기심에 여러 명이 모이지만 매주 3시간씩 연습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창작음악극 <카페 령길라>라는 연극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내용은 이주민이 주로 모이는 령길라라는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동네 식당>이라는 창작극도 있었는데 이 작품은 연출자인 자한길 알럼씨가 이주민이었다. 남양주 마석의 가구공단에서 노동자이면서, 문화 기획자로 활동하며 다른 이주민들과 연극도 하고 있었는데 알럼 씨가 이미 만들어 놓은 대본이 있었기에 우리는 알럼 씨에게 직접 연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약 2년 정도 함께 <우리 동네 식당> 연극을 했다. 이 연극을 할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파견 나온 예술인들이 음악도 만들고 연기도 하며 협업을 했다.

퍼포먼스&연극 <마이 비자> 이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비자 문제다. 2023년에 내용 구성을 위해 같이 협업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직접 이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영상 인터뷰를 했고 영상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비자 문제를 둘러싼 불안감 등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대본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극중에서 국제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한 니샤의 집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쳐 칫솔이나 속옷 등을 조사한다. 이 공연에서는 여성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우리가 인터뷰한 결혼이주 남성의 경험이다. 결혼해서 실제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상황, 비자 문제, 인종 차별의 문제들이 얽혀있다. 공연을 본 이주민들은 자신의 이야기 혹은 새롭게 알게 되는 다른 이주민 당사자의 이야기가 공연되고 이를 보며 즐기고 공감한다.

뮤직밴드 <지구인 뮤직밴드>라는 밴드 활동이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이 1년의 활동 기간 동안 17회 정도 공연을 한 적도 있다. 당시에 이런 활동을 하는 팀이 거의 없어서 제주도에도 가서 공연할 만큼 활발했다. <지구인 뮤직밴드>는 무엇보다도 음악적 배경지식이 너무 달랐다. 서로 타고난 음악적 리듬이 국가마다 너무 달라서 이걸 맞추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이게 매우 어려웠다. 그래도 맞춰가면서 재미있게 활동했는데 내부적으로는 프로 뮤지션과 아마추어 뮤지션의 차이도 있었다.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은 취미로 음악을 했던 경우가 많아서 즐겁게 음악을 하려고 밴드에 참여한 경우가 많다.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의 뮤지션들은 프로 뮤지션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연에 대한 생각도 달라서 어떤 문화권에서 온 뮤지션들은 공연비가 없는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해서 갈등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인 뮤직밴드>는 활동이 종료되고 새롭게 <지구인의 노래>라는 팀이 만들어 졌다. 일본, 몽골, 미국 국적의 가수 세 명이 함께

곡도 만들고 공연 활동도 했는데 각자 개성이 강했고 좋아하는 음악장르도 좀 달랐지만 새로운 노래도 만들어 공연하고, 같은 팀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결국엔 각자의 사정으로 해체됐다.

서울이주민예술제 매년 가을에 짧으면 3일 길게는 9일 정도 개최하고 있는 서울이주민예술제는 2012년 1회 이후 꾸준히 열려 2023년 12회를 맞이했다. 주중에는 노동자분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 일정에 맞추려고 한다. 영화상영, 토크, 전시, 연극,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내부에서 기획한 공연, 초청팀이나 공모를 열어 당선된 팀의 공연 등으로 진행한다. AMC팩토리 전체의 활동 슬로건은 “예술을 원하는 우리”이고 매년 서브 슬로건이 있다. 제10회 예술제의 슬로건은 “그래도 우리는 OO한다”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다른 단체에서는 행사들을 거의 취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번 쉬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투쟁의 의미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투쟁한다. 그래도 우리는 노동한다.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 한다”라는 의미에서 OO안에 여러 의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슬로건을 만들었다. 11회 때의 슬로건은 “우리 더하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우리”라는 말 안에 속하는 “진짜 우리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이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 잘해주지만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우리”에 ‘더해지는’ 사람들에 주목하고자 했다.

예술을 통한 협업의 어려움 이주민들의 경우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비자 문제가 매우 크다. 비자 때문에 한국에 있고 싶어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생계 때문에 활동

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장르별로도 협업의 여부가 좀 다른 것 같다. 영화나 연극은 처음부터 공동 작업이 많다 보니 협업이 잘 되는 편이다. 음악, 미술, 글쓰기 등은 협업이 익숙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주민의 경우 이제 처음 악기를 배우는 이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꾸준히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협업 예술인들과 시작한 게 <아이고 밴드>라는 기획밴드이다. 매년 예술제 때만 활동하고 사라지는 밴드로서 프로 뮤지션 두 명이 주체가 되고 이 시기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예술제를 위해 몇 달 동안 연습을 하는데 잘 못해도 어느 정도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이다. 프로 뮤지션 중 한 명이 음향 엔지니어라서 어느 정도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 예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여하는 이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주민 문화예술 활동가의 가능성 현재 AMC팩토리의 상근활동가인 섹알마문 감독은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로 들어왔다. 남양주 마석의 가구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서도 활동했다. 2012년 AMC팩토리와 알게 된 계기도 공간의 인테리어를 도와주러 오면서이다. 가구공장 일을 그만두고 우리와 활동하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독립영화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상근 활동도 하면서 지금은 한국독립영화계에서 가장 활발한 독립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섹알마문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예정이고 9월에 제작될 장편 극영화도 준비하고 있다. 몽골 출신의 활동가가 몽골 노래자랑 대회를 기획한 사례도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이주민들은 한국 노래보다는 몽골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가수를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노래를 좋아하던 몽골 출신의

활동가가 노래자랑 대회를 기획하고 AMC팩토리는 옆에서 지원 활동을 했다. 로빈 쉬엑(Robin Shiek) 감독은 영상 제작 워크숍(서울시 마을미디어 활동 등)의 실무자로서 워크숍 진행을 맡았는데 언어문제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한국 선주민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몇 년 동안 실무를 진행해 왔다. 배우 활동도 하고 영화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지만 생계 문제로 활동을 잠정적으로는 중단한 상태다.

영화 <헤나, 라힐맘>과 타인에 대한 질문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였던 로빈 감독은 헤나(Hyena)라는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다. 헤나는 국적은 한국이지만 아버지는 방글라데시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로빈과 헤나 사이에 라힐이란 아이가 태어났고 로빈 감독은 헤나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내가 프로듀서(제작자)를 맡았고 로빈 감독이 연출하여 완성까지 2년이 걸렸다. 로빈 감독이 헤나와의 인터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헤나가 인터뷰를 계속 미루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존댓말로 인터뷰를 해오기도 했다. 촬영과 편집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힘들었지만 완성이 되자 여러 곳에서 상영 할 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건 단순한 다문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곧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헤나는 소위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한국에서 태어나 살면서 지금까지 약 2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간 다른 외모나 말투 때문에 다른 한국인들로부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이들에게 감히 물어보지 않을 무례한 질문들을 헤나는 매번 대면하게 된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는 질문부터 매우 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세트처럼 반복된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 선주민들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적응하고 살기 위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먼저 배려하는 자세, 스스로가 어떤 삶의 자세와 매너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영화 워크숍에서 만난 고려인이나 중국동포들이 좋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라고 한다. 아마 주변에서 만난 적이 없는 이주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접촉면이 많아져야 신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이주민들은 수십 년을 같은 동네에 살아도 사소한 다툼 끝에 이웃으로부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는다. 집 근처 편의점을 지나다가 술 취한 사람을 마주쳐 “코로나야 코로나!”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이주민에 대한 배척이 심했다. 팬데믹 초반 마스크를 한국인에게만 배포하거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장의 재량으로 부당한 외출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약 2-3개월 동안 공장과 바로 옆 컨테이너로 된 기숙사로만 이동이 제한된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같이 일하는 사장과 한국 노동자들은 매일 자유롭게 이동했다고 한다. 독일 출신 이주민이 말하기를 이 시기에 한국 사람만 살아남고 외국인들은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 상상을 했다고 한다.

이주 독립영화 상영의 어려움 많은 이들이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있다.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다 보니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하기도 쉽지 않고 상영하더라도 제한적인 시간대에 상영하게 된다. 유튜브(YouTube) 같은 플랫폼에 작품을 올려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유튜브에 공개되면 많은 분들이 볼 수 는 있겠지만 상영회에 초청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상영비도 없

다. 감독에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 OTT에 작품을 올리는 경우 그들 기준에서 작품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AMC팩토리의 행사에서 상영한 작품에 대한 단체 상영 요청이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행사 당시에만 한시적인 상영권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이런 상영 요청에 대해서는 감독 당사자와 배급사 등에 연락해야 한다. 이주 관련 독립영화를 많이 배급하는 센트럴파크라는 배급사가 있다. 이주 문제를 다룬 선주민 혹은 이주민 감독들의 작품들을 배급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동포 출신 감독의 작품이 많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예술인 비자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술홍행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사업체에 소속이 되어 일정 기간에만 유효한 비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주민의 예술인 등록이 가능하기도 한데 결혼비자나 영주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와 활동하는 많은 이주민들이 그래서 예술 활동에 국적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질문한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여러 지원 프로젝트가 있다. 기관이나 기업과의 협업 활동 지원도 하고 지원금이나 대출 지원도 있다.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 준비금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혜택들은 이주민 예술가들이 한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이 없다면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하고, 특히 창작 준비금의 경우에는 국적을 따지 않으면, 영주권이 있어도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주민 예술 활동과 정책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이주민 관련 지원정책을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전환한 측면이 있다. 이전에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가 지원의 중심이었다면 이 센터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로 많이 변했다. 이주노동자보다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정 중심으로 지원 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우리가 주로 해왔던 미디어 교육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들이 활발했는데 그 지원이 모두 사라졌다. 2024년도부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이 사라지면서 전국의 이런 지원센터들이 거의 문을 닫게 되었다. 기존의 노동자 상담을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하라고 하는데 통역 문제나 담당 공무원들의 상담관련 전문성도 떨어진다. AMC팩토리도 기존에 서울시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서 받았던 지원금이 거의 사라졌다. 이주민의 문화와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있다. 활동가로서도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고, 주위에서 비슷한 활동을 해왔던 이주민방송 MWTV나 아시아문화인권연대 등의 단체들도 해체됐다. 지원예산의 부족 문제와 힘든 여건 속에서 기존의 활동가는 떠나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활동가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문제는 소위 MZ세대와의 소통이다.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경험했던 부당함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았고 미디어 교육이 유용한 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최근의 MZ세대 이주민은 도구는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한국이나 모국 양쪽에서 압박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이주민으로서 예술하기 예술가로서 비자 받기가 일단 힘들고 더욱이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예술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렵다. 야근도 잦고 주말에도 근무할 때가 많다. AMC팩토리에 와서 함께 뭔가 하려고 해도 거리도 멀다. 색깔마문 감독이 예전에 그들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말하기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쉬어야 하는 시간을 여기에 쏟아 붓고 있는 거라고, 이게 쉽지 않다고 말한다. 우스개 소리로 IS가 테러를 위해 한국에 대원을 노동자로 잠입시켰는데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서로 만나지를 못해 테러 모의를 못했다는 말도 있었다. 테러 모의도 못할 정도의 노동 환경인데 무슨 예술을 할 수 있을까? 반면 유학이나 여행으로 오는 이들은 비자 문제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여기 와서 예술을 새로 배우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인 예술가와 함께 하면 너무 가르치려 든다고 이주민들이 함께 활동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국적이든 경력 이든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문제, 계층의 문제 등이 맞물려 있다.

단체의 재정적 독립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후원회원들이 있고 대략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온다. 같이 연대하는 단체나 후원회로부터 후원이 있거나 간헐적으로 기부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도 월세와 활동비 등이 늘 부족하다. 상근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예술제의 경우 후원 없이는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데 후원이 부족할 때는 함께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재능기부로 꾸려나가기도 한다. 그래도 활동하는데 시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화 작업을 할 시간이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래도 먹고 살기는 힘들고 단체 운영비 마련을 위해 상근자 두 명 모두 미디어 교육, 영상 편집, 상영 매니저, 인터뷰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미래의 꿈 AMC팩토리 같은 센터나 기관이 없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나 같은 선주민 없이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단

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 글은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의 콜로키움 시리즈 19차에 초대된
정소희님의 발표를 녹취 정리한 후 발표자의 검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